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66호(구386호) 2008. 6. 1.(격주간)

WCDN '제5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성료

WCDN(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록 목사)은 5월 15일에서 16일까지 노르웨이 트론하이머에서 '제5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41개국에서 220명의 기독 의사가 모여 각국의 치유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한 이번 콘퍼런스는 유럽의 많은 기독 의사가 참석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한편, 노르웨이 TV 2채널과 NRK P1 라디오 방송, 파로 아일랜드 라디오 방송과 미국 ANS, 영국 UBC TV 라디오 등에 보도됐다. 특히 우리 교회 공연팀의 찬양과 연주, 독일과 노르웨이 찬양팀의 출연으로 매 순간 은혜와 감동 속에 진행됐다(4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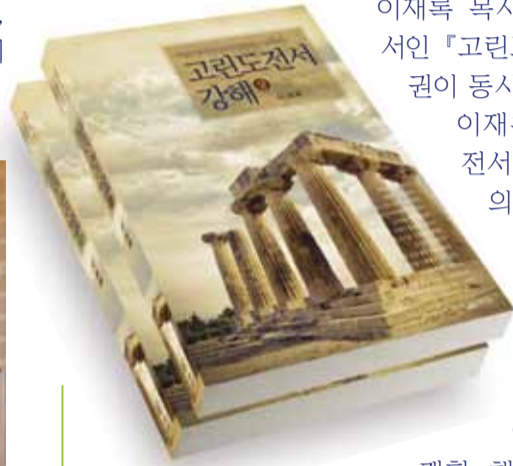


기적 체험 사례를 발표하는 미국 총시 크렌달 박사

교회와 신앙인의 지침서

『고린도전서 강해』 상·하

이재록 목사 52, 53번째 저서 발간



이재록 목사의 52, 53번째 저서인 『고린도전서 강해』 상·하권이 동시 발간됐다.

이재록 목사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교회의 참된 가치에 대한 물음은 물론, 사랑의 결핍으로 생겨난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 특유의 통찰력과 영적 감수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분쟁이나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이나 영적 은사 등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영풍문고, 반디앤 루니스, 북스 리브로 등 시내 유명 서점과 해당 서점, 인터넷, 그리고 기독교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우림북 (02) 837-7632

1천만 원 고료 이재록 목사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독후감 공모

- 응모기간: 7월 10일까지
- 응모방법: 1) 우편 152-879 구로구 구로동 851(우림북)
2) 이메일 urimbook@yahoo.co.kr
3)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com
- 응모대상: 기독교인 및 일반인(학생부, 청년부, 일반부)

- 시상: 대상 1명(300만 원), 최우수상 3명(각 부문별 100만 원)
우수상 3명(각 부문별 50만 원), 장려상 5명(20만 원)
격려상 50명(3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또는 우림북 도서 중 택)
- 문의전화: 우림북 (02) 837-7632, 818-7325

구제위원회 장학부 주관 장학금 전달식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는 5월 18일 주일 저녁예배에서 초등학생 38명, 중학생 56명, 고등학생 66명 총 160명을 대상으로 '2/4분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돼 신앙생활의 본이 되며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생에게는 1년에 두 차례 지급한다.

체육선교회 주관

제4회 관공서 및 벤처기업 친선 축구대회

우리 교회 체육선교회는 5월 24일, '제4회 관공서 및 벤처기업 친선 축구대회'를 구로 3공단 인조잔디구장에서 치렀다. 4년째 접어든 이 대회는 지역사회의 유대 증진과 친선 도모는 물론, 구로 디지털 밸리 복음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올해 참가팀은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금천경찰서, 롯데홈쇼핑, 한국웨스트, 잉카인터넷, 인켈, 우리 교회 체육선교회 총 8개 팀으로 A, B조로 나누어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우승은 우리 교회 체육선교회가, 준우승은 금천경찰서에서 차지했다.

금천경찰서 축구팀 대표는 "벤처 기업과 관공서가 만나고 구로구와 금천구가 하나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준 만민중앙교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전한 사랑

부모는 누가 자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형편과 처지,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헐뜯거나 비방하면서 이를 당연히 여기지요.

그러나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사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상대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일까?' 하며 선하게 생각하지요.

게다가 마음에 영적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상대를 판단 정죄하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믿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요. 이처럼 마음에 온전히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립니다.

글 · 이재록 목사 한국일보 연재 '길' 칼럼에서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2부 · 오전 11:3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일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18-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협 100072-52-061722
- 우체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마음을 하나로

“...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6-9)

마음이 하나 되면 뜻이 하나 되고 일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방법도 같이 집니다. 열 사람이 각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 되어 한 것과는 그 열매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나로 이룰 수 있을까요?

1.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열두 정탐꾼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열두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렘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다른 열 명은 현실을 보니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밟으라 할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고 거센 물살이 아닌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강물을 밟을 때, 요단 강은 흐름을 멈추었지요(수 3장).

하나님 일을 이룰 때 몇몇 사람이 불신의 눈으로 보면 전체적인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철벽 같은 여리고 성을 둘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적군이 화살이라도 쏘면 그대로 맞을 텐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성 주위를 돌면 어찌나.’ 하며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굳건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이나 세상 이치를 모르고 사람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하늘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믿고 그 뜻을 구해 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찾아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만드는 것이지요.

개척 이후로 우리 교회도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뤄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면 ‘힘들다.’, ‘안 된다.’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는 물론, 악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얼마나 악으로 나오는지도 압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재정이 얼마나 들고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믿는다고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 하며 마음 편히 쉬거나 잠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고후 11:28)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

해 이런저런 놀림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며칠씩 잠 못 이루며 마음을 졸이다 보면 기가 빠지고, 믿음으로 요단 강을 밟았는데도 오히려 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이 흐름을 멈추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2) 새 예루살렘을 바라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이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때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지만, 혹여 아무런 상이 없다 해도 장차 누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일꾼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할 때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일꾼은 새 예루살렘에 갈 믿음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나는 겨우 1천층, 2천층이나 갈 텐데... 이만큼만 해야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온 영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계 21장, 『천국』 책자 참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피 값을 찾아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위해 인간 경작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만 하면 그만이야.’ 하는 분은 없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38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서가는 몇몇 일꾼뿐 아니라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노력해 나갈 때 자신의 마음 그릇이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 예루살렘이 마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2.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서로 선을 마음에 품을 때라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선으로 하나 되었느냐에 따라,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함께 싸우던 병사였습니다. 그는 한마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으므로 불순종을 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을 당하고 그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도 아이 성에서 패배를 하지요(수 7장).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함께 선한 것을 품어야 합니다. 각각 선을 품었는지, 욕심을 품었는

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인지, 자기 명예를 구하는 마음인지, 이것에 따라 마음이 하나 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목자를 사랑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마음에 선한 것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양보와 용서, 화평과 섬김, 희생과 인내 등 선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합회장이 열심히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에 선교회장과 기관장은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통해 교회에 힘이 되고자 하는데 나도 최대한 힘을 모아야겠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이 잘되어도 주도하는 사람들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왜 내가 굳이 힘든 일을 해야 하나.’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뒷사람의 입장에서 전체를 위해 일을 추진하는데 일꾼들의 마음이 잘 모이지 않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더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겠다.’ 했는지요. 아니면 ‘교회와 전체를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을 써주지 않는가.’, ‘당연히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왜 순종해 주지 않는가.’ 불평해하며 상대를 노여워하지는 않았는지요.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다음에는 애쓰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야겠다.’ 하며 서운해하지는 않았는지요.

영육간에 질서는 지켜야 하지만 질서를 주장할 때에도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주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또한 다수 앞에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어떤 마음인지요. 더 좋은 의견이 있어서 건의했는데, 다른 일꾼이나 머리가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항상 선을 좇는 사람이라면 겸비하게 전체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의견이 더 낫다 해도, 혹은 전체의 의견대로 하면 내가 희생한다 해도 따를 것입니다. 비진리가 아니면 순종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최대한 마음을 모아 주지요.

이처럼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른지, 조금 열매를 더 내고 덜 내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섬겨 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셔서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게 인도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며,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행복한 영적 다이어트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실력만큼 중요한 것은 용모와 이미지이다. 만민매거진의 앵커이자 서비스 강사(위캔컨설팅)로 활동하는 최선숙 집사(2가나안연합회 부회장)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의 왼쪽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은 듯 발갱게 부어오르는 사건이 있었다.



기도로 단기간에 '단독'이 치료된 최선숙 집사

2월 26일 아침, 왼쪽 귀와 목 주변에서 원인 모를 미열이 나더니 몸살이라도 난 것처럼 온종일 고열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날엔 피부가 발갱게 부어올랐고, 또 하루가 지나니 부어오른 안면 피부가 경직되고 고열로 머리가 멍해 눈의 초점까지 흐려졌다.

“심상치 않아서 피부과를 찾았는데 ‘단독’이라고 하더군요. 연쇄상 구균에 의한 피부 감염으로 패혈증을 동반하면 단기간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의사는 상태가 많이 진전됐으니 입원해서 항생제와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신앙에 의지했다. 하나님 능력으로는 어떤 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성대 결절’ 진단을 받고 강사 생명이 치명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도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된 적이 있는 그녀였다.

믿음으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한 2월 29일 금요일야 예배 2부는 사집회. 그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마음도 있었죠. 또 제가 가족을 사랑

해서 내 것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힘든 상황에 처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떠오르니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그녀는 통회자복할 수밖에 없었다. 당회장님의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 중에 자신의 병명이 불릴 때, 몸 속에서 올라오던 열은 멈추고 이내 온몸의 열이 식었다. 그녀는 치료를 확신했다.

3월 2일 주일, 얼굴은 여전히 발갱게 부어올라 눈이 안 떠질 정도였지만 치료의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은 편안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당회장님께 안수기도를 받은 뒤 얼굴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다음 날엔 부기가 싹 사라지더니 경직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표피가 벗겨져 깨끗해졌다.

3월 13일,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단독’이 완전히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이다.

마치 영적 다이어트를 한 것처럼 마음의 찌꺼기를 빼내니 이전보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하다며 그녀는 감사했다.

글: 임정미 manminnews@hotmail.com

전도 가이드

“네 것을 나누어 주라”

한 평범한 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이 성도님은 전도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네 것을 나누어 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함께, 꼼꼼한 뜨개질 솜씨와 정갈하게 만두 빚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웃집에 사는 아이들의 체형을 유심히 관찰하고는 뜨개질로 예쁜 조끼를 짜서 전도지와 함께 선물했지요. 또 정성스레 빚은 만두를 찌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이웃집에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 왔습니다.

“아줌마! 교회 다니시죠? 저 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예? 교회에 가시겠다구요? 정말이세요?”

이렇게 해서 자신을 교회로 데려가 달라는 아주 뜻밖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소극적인 전도 방법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다정하고 좋은 이웃이 되는 데서부터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Questions in faith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는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롬 2:14-1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구원의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즉 율법을 준행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 율법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삼았지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마음과 죄로 인해 들어온 비진리의 마음,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인 양심으로 구분됩니다(롬 7:22-23). 이 양심은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각자 타고난 마음 발이나 성장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양심이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는 못 미치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공물을 베풀었습니다. 곧 양심에 따라 선을 행

하고 악을 행치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반면에 선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악인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구원과는 상관없었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천지 만물만 보아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롬 1:20). 하늘을 두려워하여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으면 일단 윗음부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도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3일 동안 윗음부에 가서 구원의 도를 전파하셨습니다(벧전 3:19). 이때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지요. 그 뒤에 낙원의 가장자리에 마련된 천국의 대기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이와 같이 윗음부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케 되며, 대기 장소로 옮겨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므로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양심 심판으로, 신약 시대에는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습니다.



의학계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라

제5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성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영성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노르웨이에서 세계 41개국 220명 기독 의사들이 모여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이재록 목사)는 기독 의사들이 기도를 통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치유 역사에 대한 증거를 수집 분석해 하나님 권능을 알리는 초교파 단체이다. 미국, 두바이, 인도, 러시아, 필리핀, 중국, 페루 등 세계 곳곳에 지부를 두고 지역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5월 15일과 16일에는 ‘제5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웨이 트론하임에서 개최됐다. 세계 41개국 220명 기독 의사들 가운데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의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특히 노르웨이에서 60명의 의사가 참석했다.

의학으로 포기했지만 믿음으로 치유한 사례 발표

콘퍼런스는 조직위원장 예니스 아브라나 박사(파로 제도 국회 외교위원장)와 WCDN 회장 채윤석 박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채윤석 박사는 “현재 최고의 의학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치병과 급성 사망에 이르는 신종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알고 계시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전했다.

한편 WCDN 설립자 이재록 목사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기독의사로서 과학과 의학 지식을 활용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 발표 시간에는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된 사례가 병원 자료와 함께 발표됐으며, 토론으로 이어졌다.

상세한 병원 자료가 제시되어 가장 큰 호응을 받은 박건위 학생(15세)은 세 살 때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심한 포도막염과 망



막 완전 박리 현상(시신경 층이 떨어져 나와 시력을 잃는 것)이 생겼다. 게다가 안구가 쪼그라드는 안구 위축증까지 진행됐다. 2006년,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했고 우측 눈의 시력도 떨어져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2007년 7월,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는 순간 왼쪽 눈에 빛이 들어 오면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빛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왼쪽 시력이 0.1로 나왔다. 안압 수치도 4에서 18로 쪼그라든 안구가 정상 크기로 회복됐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0.1이었던 오른쪽 눈의 시력이 0.9로 현격히 좋아지는 기적을 체험했다.

이 외에 미국, 노르웨이, 벨기에 등에서 온 전문가가 난치병과 불치병을 기도로 치유한 의학 사례들을 발표했다.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 심한 자궁 내막증으로 11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환자가 기도로 치료되고 임신이 된 사례 등 불치병과 난치병이 믿음으로 치료된 사례들을 발표했다.

기적을 믿는 의사들

콘퍼런스에 두 번째 참가한 촌시 크랜달 박사(미국 팜비취 심혈관 병원 원장)는 FOX TV 뉴스에 방영된 체험 내용을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줌으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53세의 심근경색 환자에게 4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생되지 않자 사망선고를 했다. 순간 “환자에게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

고, 촌시 크랜달 박사는 환자 옆에 앉아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세요.” 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몇 분 뒤, 심장이 박동하고 손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완전히 살아났다.

한편, 미국 영적 외교운동 재단 회장이며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는 “하나님 권능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소개한 이 콘퍼런스는 권능의 역사가 2천 년 전에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의학계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라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노르웨이 트론하임에서 목회하는 K목사는 “현재 유럽은 대부분의 교회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기독의학 단체에서 하나님 권능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런 콘퍼런스가 자주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칸디나비아 WCDN 대표이자 이번 콘퍼런스 조직위원장인 예니스 아브라나 박사는 “기독 의사는 특권을 갖고 있다.”며 “의학과 과학이 제공하는 도움 외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콘퍼런스를 마친 한 참석자의 소감은 콘퍼런스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지금 의학적인 경험과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권능을 증거하는 의사들에 의해 의학계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제6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는 2009년 5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① 예니스 아브라나 조직위원장 (의학박사, 파로 제도 국회 외교위원장)
- ② 에드나 아이스타카드 조직위원회 총무 (노르웨이 트론하임 세인트 울람 대학병원 외과 의사)
- ③ 스펀 프레드릭 조직위원 (덴마크 국립병원 외과 의사)
- ④ 치유 사례 발표를 경청하는 기독 의사들
- ⑤ 한국 공연팀에 갈채를 보내는 참석자들
- ⑥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한국 공연팀
- ⑦ 실시간 보도된 언론 방송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051)805-1363, 051)80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래동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053)356-4717~8,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아백화점 부근 ☎053)783-3017, 017-539-1009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유촌동 빛고을로)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운천초교 앞) ☎062)266-7001,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016-215-0116, 010-6809-5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055)247-8891~2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흥천동 ☎054)748-5777, 010-2085-7003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061)652-8311, 011-60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삼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033)251-1144, 010-7770-2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2)558-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02)995-9951, 0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동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031)840-2906, 019-251-3149
--	--	--